해설
배합사료 가격인상 및 일부사료 성분량 한도 개정실시
김 정 인
(본점 편집위원)

작년 후반부부터 우둔히 나돌던 배합사료의 가격인상이 1980년 1월 22일 드디어 현실화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용수부난으로 가진 백전했던 양계업계에 육계가격이 오르는동
잠은 희소식에 부풀었던 육계업자도,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허덕이고 있던 탄광업자들에게도 너무나 높은 인상소식에 접하고서는 놀랄
이 감감히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인상폭이 환율변동 때문에 당초의 17%에
서 28.3%로 대폭 높아져 양축가들의 주류사
은 당분간 더욱 더 움직이지게 되었다.

지금 세계는 이런 미래사관된 인질사태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정령으로 뒤 الوحيد
여 식유나 금값이 폭등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 달러환율이 19.8%이나 상승되어 환율도의
물가상승률이 어느정도가 될지를 가늠하기가
이러한 상황이다.

미나 축산업계가 당하는 시련은 아니겠지만
위와 축산업중의 사료비부담이 크고 보니 모
든 양계업자를 포함한 축산업자들은 단 1
%의 경영합리화가능성이라도 전력을 투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의 도움을
가해주려면 국가정세나 국내 경제가 회복적
인것도 아닌만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난국을
해결할 땐가 아닌가 싶다.

품목별 배합사료가격조정 총괄표
(단위 : 원/㎏)

<table>
<thead>
<tr>
<th>정명</th>
<th>구분</th>
<th>일반공장</th>
<th>농축협공장</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td>
<td>현 행</td>
<td>조 정</td>
<td>대 비</td>
<td>현 행</td>
</tr>
<tr>
<td>양계용</td>
<td>122.44</td>
<td>142.94</td>
<td>16.74</td>
<td>120.41</td>
</tr>
<tr>
<td>(10%)</td>
<td>108.74</td>
<td>139.47</td>
<td>28.26</td>
<td>106.27</td>
</tr>
<tr>
<td></td>
<td>104.25</td>
<td>134.51</td>
<td>29.03</td>
<td>102.17</td>
</tr>
<tr>
<td></td>
<td>91.79</td>
<td>114.94</td>
<td>25.22</td>
<td>89.92</td>
</tr>
<tr>
<td></td>
<td>98.09</td>
<td>121.17</td>
<td>33.72</td>
<td>95.77</td>
</tr>
<tr>
<td></td>
<td>94.78</td>
<td>126.67</td>
<td>33.65</td>
<td>92.26</td>
</tr>
<tr>
<td></td>
<td>128.24</td>
<td>158.44</td>
<td>23.55</td>
<td>126.42</td>
</tr>
<tr>
<td></td>
<td>124.30</td>
<td>148.91</td>
<td>19.80</td>
<td>122.48</td>
</tr>
<tr>
<td></td>
<td>147.36</td>
<td>147.36</td>
<td>145.35</td>
<td>145.35</td>
</tr>
<tr>
<td></td>
<td>103.68</td>
<td>135.74</td>
<td>30.92</td>
<td>101.55</td>
</tr>
<tr>
<td></td>
<td>(가중평균)</td>
<td>(13.6)</td>
<td>(13.6)</td>
<td>(13.6)</td>
</tr>
<tr>
<td>증별</td>
<td>구분</td>
<td>일반공장</td>
<td>농축협공장</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천 량</td>
<td>조 정 비</td>
<td>천 량</td>
<td>조 . 정 비</td>
</tr>
<tr>
<td>양돈용 (7종)</td>
<td>절억이체게육</td>
<td>119.33</td>
<td>139.08</td>
<td>16.55%</td>
</tr>
<tr>
<td></td>
<td>육성 돼</td>
<td>100.64</td>
<td>132.07</td>
<td>31.23</td>
</tr>
<tr>
<td></td>
<td>비육연간육</td>
<td>97.49</td>
<td>132.70</td>
<td>36.12</td>
</tr>
<tr>
<td></td>
<td>비육연간육</td>
<td>95.05</td>
<td>130.99</td>
<td>37.81</td>
</tr>
<tr>
<td></td>
<td>임신 돼</td>
<td>90.52</td>
<td>125.77</td>
<td>38.94</td>
</tr>
<tr>
<td></td>
<td>포유 돼</td>
<td>98.59</td>
<td>131.62</td>
<td>33.50</td>
</tr>
<tr>
<td></td>
<td>종돈</td>
<td>92.74</td>
<td>125.72</td>
<td>35.56</td>
</tr>
<tr>
<td></td>
<td>(가중평균)</td>
<td>(7.8)</td>
<td></td>
<td></td>
</tr>
<tr>
<td>축우용 (10종)</td>
<td>어린국아육</td>
<td>109.57</td>
<td>138.40</td>
<td>26.31</td>
</tr>
<tr>
<td></td>
<td>충중국아육</td>
<td>105.39</td>
<td>133.85</td>
<td>27.00</td>
</tr>
<tr>
<td></td>
<td>큰소국아육</td>
<td>82.42</td>
<td>110.02</td>
<td>33.48</td>
</tr>
<tr>
<td></td>
<td>임신우</td>
<td>83.05</td>
<td>110.64</td>
<td>33.22</td>
</tr>
<tr>
<td></td>
<td>착우(I)</td>
<td>81.39</td>
<td>110.40</td>
<td>35.64%</td>
</tr>
<tr>
<td></td>
<td>착우(II)</td>
<td>89.03</td>
<td>123.09</td>
<td>38.26</td>
</tr>
<tr>
<td></td>
<td>착우(III)</td>
<td>98.75</td>
<td>131.22</td>
<td>32.88</td>
</tr>
<tr>
<td></td>
<td>고기소편육</td>
<td>90.25</td>
<td>126.87</td>
<td>40.58</td>
</tr>
<tr>
<td></td>
<td>고기소편육</td>
<td>87.44</td>
<td>123.70</td>
<td>41.47</td>
</tr>
<tr>
<td></td>
<td>종모우</td>
<td>80.32</td>
<td>107.86</td>
<td>34.29</td>
</tr>
<tr>
<td></td>
<td>(가중평균)</td>
<td>(6.1)</td>
<td></td>
<td></td>
</tr>
<tr>
<td>독수용 (3종)</td>
<td>소농축육</td>
<td>98.36</td>
<td>137.09</td>
<td>39.38</td>
</tr>
<tr>
<td></td>
<td>육성비육</td>
<td>90.75</td>
<td>113.80</td>
<td>25.40</td>
</tr>
<tr>
<td></td>
<td>큰소비육</td>
<td>120.34</td>
<td></td>
<td></td>
</tr>
<tr>
<td></td>
<td>(가중평균)</td>
<td>(0.8)</td>
<td></td>
<td></td>
</tr>
<tr>
<td>합계 (30종)</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1. 사료가격의 인상율

배합사료가격은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계용사료의 주종목인 산란초기육 배합 사료가 일반공장의 경우 29.03%, 농협공장의 경우 29.64%가 인상되었으며 육계용사료의 경우 전기 가 23.5~23.9%가 인상되었으며, 임신육 사료는 20,7%의 소폭 인상에 그쳤으나 고인공을 둔 예에 많은 농가들도 19%에서 18%로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이다.

2. 인상원인

금번 배합사료가격이 가중평균치로 28.3%
3. 앞으로의 배합사료 가격 및 수급전망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의 사료공급예상량은 약 350만톤으로 작년도의 390만톤보다 감소하였고 있다.

表 2. 개정된 양계용 배합사료의 성분량 한도 (%)는 현행

| 품 명 | 성분량의 최소량 (%) | 성분량의 최대량 (%) | 대사에너지의최소량 (kJ)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조단백질</td>
<td>조 지방</td>
<td>칼슘</td>
</tr>
<tr>
<td>(1) 어 린 병 아리 (6주 이하)</td>
<td>18.0</td>
<td>3.0</td>
<td>0.7</td>
</tr>
<tr>
<td>(2) 중 병 아리 (7주~12주)</td>
<td>16.0</td>
<td>3.0</td>
<td>0.7</td>
</tr>
<tr>
<td>(3) 큰 병 아리 (13주~산란개시전)</td>
<td>12.0</td>
<td>3.0</td>
<td>0.4</td>
</tr>
<tr>
<td>(4) 산 란 조 기 (산란개시후~25주)</td>
<td>15.0</td>
<td>3.0</td>
<td>3.0</td>
</tr>
<tr>
<td>(5) 산 란 중 기 (26주~40주)</td>
<td>14.5</td>
<td>3.0</td>
<td>3.0</td>
</tr>
<tr>
<td>(6) 산 란 말 기 (41주 이하)</td>
<td>14.0</td>
<td>3.0</td>
<td>0.5</td>
</tr>
<tr>
<td>(7) 육 재 건 기 (4주 이하)</td>
<td>19.0</td>
<td>3.0</td>
<td>0.7</td>
</tr>
<tr>
<td>(8) 육 재 우 기 Ⅰ (5주~출하8일전)</td>
<td>17.0</td>
<td>3.0</td>
<td>0.7</td>
</tr>
<tr>
<td>(9) 육 재 우 기 Ⅱ (출하7일전~출하시)</td>
<td>17.0</td>
<td>3.0</td>
<td>0.7</td>
</tr>
<tr>
<td>(10) 종 재</td>
<td>15.5</td>
<td>3.0</td>
<td>3.0</td>
</tr>
</tbody>
</table>

※ 1980.2.1부터 시행

- 38 -
표. 백색레그혼의 산란초기에 있어서 에너지와 단백질 요구량

<table>
<thead>
<tr>
<th>매설에너지</th>
<th>단백질</th>
<th>수달일</th>
<th>요구량</th>
<th>석방량</th>
<th>단백질</th>
<th>수달일</th>
<th>요구량</th>
<th>석방량</th>
</tr>
</thead>
<tbody>
<tr>
<td>Kcal/kg</td>
<td>%</td>
<td>mg</td>
<td>gm</td>
<td>%</td>
<td>mg</td>
<td>gm</td>
<td>%</td>
<td>mg</td>
</tr>
<tr>
<td>2,600</td>
<td>15.0</td>
<td>117</td>
<td>150</td>
<td>17.0</td>
<td>105</td>
<td>135</td>
<td>18.0</td>
<td>100</td>
</tr>
<tr>
<td>2,750</td>
<td>16.0</td>
<td>111</td>
<td>142</td>
<td>18.0</td>
<td>100</td>
<td>128</td>
<td>19.0</td>
<td>95</td>
</tr>
<tr>
<td>2,900</td>
<td>17.0</td>
<td>105</td>
<td>135</td>
<td>19.0</td>
<td>95</td>
<td>122</td>
<td>20.0</td>
<td>90</td>
</tr>
<tr>
<td>3,050</td>
<td>18.0</td>
<td>100</td>
<td>128</td>
<td>21.0</td>
<td>86</td>
<td>110</td>
<td>22.0</td>
<td>82</td>
</tr>
<tr>
<td>3,200</td>
<td>19.0</td>
<td>95</td>
<td>122</td>
<td>24.0</td>
<td>78</td>
<td>105</td>
<td>26.0</td>
<td>72</td>
</tr>
<tr>
<td>3,250</td>
<td>20.0</td>
<td>90</td>
<td>115</td>
<td>27.0</td>
<td>72</td>
<td>95</td>
<td>30.0</td>
<td>65</td>
</tr>
</tbody>
</table>

※ 산란율 76% (산란기중 평균)
Nutrition of the Chicken Scott 박사자

4. 개정된 배합사료 성분도

이미 대부분의 양육자가 알고 있었지만 급
년도 2월 1일부터는 배합사료의 성분도
도가 일부변경되었다. 이기회를 빌어 간단히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이 어린병
아리의 조단백질량의 핵심 식품의 N, R, C표
준등의 조단백질수준 하향조정에 맞추어 중전
19%에서 18%로 조정되었고 모든 산란계사료
의 칼슘최소량이 중전의 2.5%에서 3%로 상
향조정되었으며, 아울러 조화조분도 13%에서
14%로 조정되었다.

출장히 말해서 배합사료의 조단백질규정은
병의미가 150이고 필수아미노산이 적절수준공급
되느냐가 문제라 한은 상식화된 이론이다. 하지만 어린병아리의 경우 조단백질18%의
경우 이에 맞는 아미노산을 공급하여야하
는지 자세하니가 동물의 저항력을 가지자
기 쉽다고 보아된다.

또한지, 금번의 배합사료성분량은 총전
의 옥수수가격이 저렴한 배를 많이 창고한
것이나 필자가 음간저널을 통해서 발표하면
도 있듯이 이제 사료의 영양(에너지)공급 원
인 옥수수가 가격이 많이 응났기때문에 경제
성으로서 되어야할 배합사료가 너무 고용량사
되어 비경제적일수도 있을 것임을 우려하고
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백색레그혼중 산
란계사료에 있어서 다른 여름에는 한국의 산
란초각사료의 대사료에 1kg당2,700Kcal이
상으로 제한되어있으므로 경상적인 산란율은
유지하려면 배합 조단백질18%정도의 고단
백산란사료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반 사료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산란계가 1일
105g를 섭취할 능력이 있는 품종과 사양판
라가 이루질 수 있다면 사료의 단백질량은
17.0%에 달할 수 2,600Kal로 조정하여 주
든 것이며 계란 1개당 생산비용을 저하할수
도 있는 것이다. 사료원료의 가격진폭에 따
라서 달라지겠지만 주 에너지인 옥수수의
가격이 매우 상승한 지금 이런 가능성에 대
하려는 사료성분량조정도는 따라서 하향기사
료의 에너지 수준을 추가하여주거나 아예 자
유화하도록 하면 급상승의 가능성이 생
각된다. 무엇보다도 측산도 경제적임이 이상
보다 저렴한 사료료로 소기 이상의 생산을 하
어야 할지 지식의 당연한 약간이 때문이다.

이점으로는 앞으로도 국내현황계와 업계와 정
부가 신속히 검토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배합사료의 실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당위
적간물량 조절되는 사료료가 보다 자전한다는
점이고 배료는 고효율사료가 배료는 저효율
사료가 더욱 경제적일 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금번부터 배합사료의 사용용도를 배
합사료계조업자가 양축가의 사양기술, 계
절 등을 간단하여 업계의 경쟁기표할 수 있게하
여 진일반적, 휴약사료로서 육체후기 사료
의 부활운동은 환경히 마치는 바이다.

5. 예상되는 문제점

금번 사료가격진폭으로 말미암아 급년도 전
반기의 축산업계 수지전망은 일단 길은 역구
률이 까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축산물시가 정상적인가 하더라도 사료비가 경제적중 차지하는 비율
이 70%였다고 할때 사료비의 인상으로 약 90
%로 부채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축산
물시가 20~30%정도 상승하지 않는다는가는
20%이상의 저자를 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
오기 때문이라는.

물체로 기타 사료의적 요인 즉 광염비, 약
품비 캐리비등이 아울러 물가가 오르는 비율
로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경영악화를 부채질
할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계속되는 물가보편화에 축산물의 소
비위축현상이 예상되다는 점으로서 조급이라는
don급과로 변형현상에 이어간될때는 가격폭락이
라는 흔적을 보이게 마련이다.

따라서 축산인들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
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여 저자를 축산
은 물론 생산조절효과를 기여해야 할것이고
30%정도의 업직을 제한하여 생산을 줄이고
앞으로의 계약사료선택에 있어서 보다 신중
한 태도로 구입하여 경영활성화를 기여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양축업자는 품질보다는 가격
이나 외상조건에 더 중점을 두어 사료구입을
하는 경향이 독특했던 것도 사실이므로 단위 축
산본당 소요사료비를 제한하는 즉 사료의 효
용성을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현명한 양축업자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료공급에 난중
하는 사료분배체의 수량이 기각하였다던가,
중소사료공급보다 3~10배 많은 물동량을 생
산하는 대형공장의 어분이나 천연채 인산, 칼
슘등 비판환료의 사료량이 중소기업사용수준
을 넘지 않는다는가 하는 점은 품질관리가 소

히란 공장도 있지 않았나하는 우려를 논기에
중분한 것이다.

6. 결론

금번 사료가격인상은 사료업체나 정부자체
에서 소화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
고 하겠다. 그러나 국민문무가 어려움을 당
하는 이 때 비단 축산업계나 사료업체만이계
층 안정된 경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
문무가 짐을 한듯 이 단말을 국복해야할 것
이다.

다행히 금년도 2월부터는 물가이 높은,
혹은 경제성이 높고 가축의 특성 및 사항현황
등에 적합한 특필적인 배합사료를 주문사료
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으므로 판
심있는 양축업자는 사료제조공장출산과 접
촉상의하여 보다 좋은 사료를 공급받는데 주
저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갤런사료등의 공급
가격과 생산을 가능하도록 사료공장 자율화
에 맡기고 원점등 정부당국에서 진일보한
사료정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다항한 일로서
불경기물 태러나갈 수 있는 처방을 보는것 같
아 한다가 희망을 들여낼수조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사료공장으로 하여금 자
율적으로 사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
적인 사료정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_png의 사료
가격인상의 중점을 수많은 한국의 사료기
출자 및 유능한 학계의 협조로 상당히 희수될
수도 있으리라 고대하여 본다. 또한 양축
업자의 입식조절 및 과한
노계도태동으로
축산물의 공급량이 조정되어야 할것같은
문
의한 일로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통감하
게 하는 일로서 전국적인 양계업자의 단결
이 필요한 시기에서 아닐가한다.